



APOLLONIA

아폴로니아가 제 90호 | 2015년 5월 | 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신보사

2016학년도 동창회 입회식 및 장학금 전달식

출판위원 / 편집 200호

지난 3월 24일 목요일, 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나사군홀에서 1학년 들의 동창회 입회식 및 장학금 전달식이 거행되었다. 동창회에서는 매년 치전 원 입학과 동시에 동창회 입회의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신입생들의 경북대 지 신원에 대한 소속감과 유대감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창회에서는 후배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장학 기금 마련을 위하여 장학금 수혜자가 졸업 후 본인 상황에 따른 대별별 시작 모금활동을 벌이고 있다.

식에는 유원재 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 배세복 경북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동창회장을 비롯한 많은 내빈과 경북대 치전 원 1, 2학년 학우들이 참석하였다. 배세복 경북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전문 대학원 동창회장의 환영사와 유원재 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 장의 축사를 통하여 2016학년도 경북대 치전원 신입생들의 제1회 동창회 입회식을 중심으로 축하하여 선·후배 및 동기들을 서로 배려하고 바른 치과 의사로서 성장하길 당부하였다.

이번 동창회 수여식에서는 3학년 김재진, 3학년 김광수, 3학년 윤희영, 3학 년 조단호, 2학년 박진희, 2학년 오윤경, 2학년 송재원, 2학년 안유진, 2학년 예규희, 2학년 오세진, 2학년 한지혜, 총 11명의 학우가 각각 300만 원의 장 학금과 장학증서를 받았다.



모두 모이는 모꼬지

출판위원 / 편집 200호



생각기도, 두렵기도 했던 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의 1년을 무사히 마 지고 2학년 생활을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다른 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 던 여러 일을 겪으며 정신없이 학기를 마친지가 몇 개월 같은데, 학기 중의 시간과 방 학 중의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것만 같다. 작년에는 1학년으로서 참가했지만, 올해 는 2학년 학생회의 구성원으로서 참가한다. 그 때문에 몇 주 전부터 다른 동기들과 함께 모꼬지 행사, 음식 등 소소한 것까지 준비하게 되었다. 선배, 후배들과 교수님 들이 행사를 즐길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학교 생활을 하는 마음이 준비하다 보니 어느새 4월 8일, 모꼬지 날이 되었다.

행사를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걱정과 준비했던 행사가 드디어 시작이 라는 설렘을 함께 안고 우리는 부끄러우며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함께 버스에

| 주요 기사 |

- 모도 1 동창회 입회식
- 2 모두 모이는 모꼬지
- 3 김성교 원장님 취임 1년
- 기적 4 인공치은, 비록을 넣어 일상속으로
- 5 특이일이론다

- 사회 6 고가인 책이거
- 7 우리시회의 안전한 이송 활동
- 8 관심이 필요한 아이들
- 9 아동학대 의무신고자로서의 치과 의사
- 문화 10 사라지지 않는 저서들
- 11 수련과 클라리, 그리고 전일소
- 12 치과 일기

| 만든 이들 |

- 편집부 : 박지훈, 이아미, 한은희, 박혜리, 이시영, 홍유진, 권이음, 박지영, 김유지, 손혜지, 윤은주
- 포도부 : 이영희, 김연민
- 사랑부 : 장연도, 정은지, 박은철
- 문화부 : 전신은, 박광우, 내동진, 안우희, 오우재
- 수습기자 : 김재근, 박준희, 송준서, 신영희, 최영희, 김신아, 박서윤, 박준철, 박현민, 최수영, 김은주, 김현진

한 신입생들은 실력보다 행사의 중심은 역시 신입생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공학, 예체대, 대학원을 통해 서로 얼굴을 익힌 학우들 아직도 낯설고 친근한 모습이 많이 보인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 작년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신입생들이 귀엽고 반갑다고 하고, 다시금 학우의 인상을 미친 것에 감사한 마음도 든다. 무엇보다 학교를 벗어난다는 기쁨을 만끽하며 어버이를 보고 싶어하는 참 귀중한 순간을 감상하다 보니, 어느새 비스는 부끄러워하며 도망간다.

드디어 도착한 부끄러워하는 대기보다 남색으로 물든 연인들 아직도 눈앞에 남아있어 매우 아름다울 경지를 자랑했다. 과 공미를 입고 온 것이 조금 부끄러운 정도로 날씨도 따뜻해 비쁜 학교생활 때문에 가져왔었던 모자를 눌러서도 괜찮을 것 같았다. 하지만 모자를 쓴다는 걸을 잠시 뒤로 하려고, 비스에 실고 온 짐을 내리고 학생들을 받으니 안봐도 좋다. 다른 학교에서 온 신입생들이 온 것에 속초의 코라는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풍도 없어서 경건함이 내내 전해진다. 서로서도 도와주고 싶은 순간 후 다들 방에 모여 인사하는 시간의 거 같다. 1, 2, 3학년 모두 편 방에 모여 서로 인사와 소개를 하고 도란도란 대화하는 시간은 개인도 오지마는 즐거움인 것 같다. 처음 보는 선배, 후배들도 모여 조금은 친한 친구이지만 방학 때 학교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 친한 학교를 다니는 공대생이 있어서인지 일관된 자세와 분위기 때문에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소풍 온 기분은 느끼게 감정으로 감동사실한 후, 오고갈까 한 스캐폴드 시간 전까지였다. "술거양인 나리."와, "술을 신개념으로 표현하기", "말년의 술꾼"은 주제로 해서 코앞으로 지금쯤엔 저들은 학우들 되게 재미있어할 시간에 발표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다. 속초 주제를 신개념으로 사를 하면 술을 분석했는데, 귀찮은 다들 어색하게 소개하려고 오르려 하다가 다른 코들과 보이지 않는 신경전으로 점점 적극적으로 변해갔다. 먼저 사선 발언을 끝낸 조는 무리로 들어가 다른 조의 사선발언을 구경하며 모두 웃고 즐기며 좋은 시간을 보냈다. 사선 발언을 끝내고 속초로 들어가 자제를 학기 전까지의 학기 휴식시간을 거른다.

속초 지하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마친 후에는 다들씩 강당에 모여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거른다. 2학년 통규준 학우가 '5인 5각 학원'과 '달리기', '신분제 게임'을 진행했다. '5인 5각 학원'은 말 그대로 4명이 다리를 묶고 달리기 못하는 건데, 반항할 때는 학원장이 놓아준다. 모두들 다시금 그대로 묶은 채 거대한 사발에 가득 담긴 학원으로 향해서 마셔 했다. 학우들 상에서 코앞으로 신수일 선배하고 게임을 진행했는데 다들 많이 친해졌는지 요즘을 잘 맞아서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물론 요즘이 잘 맞기 보다는 말이 빠른 선수가 나머지 선수들이 어긋는 게 조도 있었다. 어떤 조는 반항함에 늦게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학원대로 버퍼서 역순을 거머쥘려고 했다. 서로 마음을 도사려게 일을 진행하고, 또 응원하면서 레크리에이션의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그 다음 게임은 '신분제 게임'이었다. 각 조에서 세 명씩 나와 신분제 위해 올라가 시는데, 신분제를 한 번씩 걸어놓고 그 위에서 버리는 게임이었다. 처음엔 쉽게 시작했지만 게임이 진행될수록 흥미진진해졌다. 재력이 좋은 신입생들은 다른 학

생들 입고 뛰기도 하는 등, 다들 열광해 대인했다. 하지만 어렵게도 한 팀 두 팀 떨어지고, 한국 마지막으로 우승한 조는 자치로 여학생들만 세 명이 나온 조였다. 계속 유인할의 별인 스카 우승의 요인이가 아니었나 싶다.

게임이 끝난 후에는 전문 MC의 진행과, 교수님들의 인사 아래 사선 전담스카 시작되었다. 코앞으로 학우들 사선은 크게 뛰우고 사선에 대한 생각이 간절해진다. 전문 MC 못지않게 재치 넘치는 학우들의 소개는 분위기로 온 그날에 부족함이 없었다. 장외적으로 사선을 하고, 어떤 학우는 공개적으로 여자친구도 구하기도 했다. 몇몇 학우들만 다른 학우들과 교수님들에게 확실히 얼굴 도란을 직원들이 보였다. 그 외에도 다들 즐거운 마음으로 찍은 사진들을 보니 오로지기가 아니라, 사선도 남이 주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1학년 1학기가 가장 힘들다고 하는 데도 설 때는 웃고, 눈 내리고 버지하지 않고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의욕을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 같다.

이렇게 끝난 게임이 모두 끝나고, 학생지원팀들이 소개가 이어진다. 박인숙 학생지원팀이 1학년에 했던 '보이'의 경우 주면서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지난 여름에서 1, 2, 3년을 전담스카를 앞으로 걸기까지 했는데, 예체대도 더욱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학우들이 일관과 비서는 남색이었던 전담스카 교수님들에게 웃음을 전하고 좋은 분위기 덕분에 모두 기분이 굉장히 좋은 상태로 일정을 마칠 수 있었다. 개인 입구에서는 교수님이 참가자들에게 다른 학우들에게 해주셨다고 살짝 감사하기도 했다.

한참 좋은 분위기도 있고 코앞으로 학우들이 많이 참여했다. 학교 내에서는 '사선'이었고 '일제'가 가장 힘들었던 교수님들이며, 몇몇 여학생들은 기분이 좋게도 참여했다. 보니 좀 더 수직적인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었다. 교수님들 선배를 그리고 앞으로 함께 생활할 동기들과 함께 유익한 소풍 마다 보니 금세 새해를 훌쩍 넘어 학기 무렵 하고 있었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어느새 마무리해야 한다는 아쉬움에 별일들은 무거웠지만 새로운 일상을 위해 다시 재구조를 참여해야 했다.

경복대학교 지하학술대학원에 인선하며 짧은 시간 동안 어느 곳에서도 경험하기 힘든 많은 행사에 참여했다. 행사에는 다른 어떤 일과 다르게 행사가 있는 날이면 참여 피곤함을 다시 걱정하는 날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행사 덕분에 우리 학교의 일원들이 더욱 가까워질 수 있게 된다면 어떤 아쉬움도 없는 안중까지도 볼 수 있는 좋은 추억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글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은 당연히 오고자 할 것이다.

이제 막 겨울을 시작한 1학년부터 게임 비쁜 일정을 보내는 선배들 그리고 시간을 쪼개어 학생들을 위해 달려와 주신 교수님들까지 모두가 같이해서 서로 각의 없이 어긋한 오고자해서의 시간은 모두에게 경복대학교 지하학원의 일원으로써 느낄 수 있는 자부심과 정체성을 더욱 굳건히 해주었다. 무리에게 인선한 용기들을 넘어 자부심을 느끼게 해준 오고자 행사는 인생의 소중한 경험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김성교치전원장을 만나다. 취임1년, 그리고 앞으로 1년

● 오유재 / 편집준서기

새학기가 시작하던 지난 8일, 우리 대학의 원장님과 인터뷰를 가졌다. 벼룩신 외종에도 시간을 내어 반갑게 맞아 주셨는데 원장님의 취임 1년, 학교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원장님의 1년 1달을 따라가 보자.

〈취임 1년, 그리고 앞으로 1년〉

Q: 취임 1년, 1년간의 치전점은 어떤가요?

A: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복지동이 완공되어 그 안에 교수연구실, 4학년 독서실, 세미나실, 열악하다 여는 등의 공간을 확보했고, USB시스템을 도입해서 교육환경개선을 도모했다. 아 마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학교가 될 것이다. 매가점에서 기부금 4억을 받아서 일종의 캠프(다들)로 인상을 뜨고 재학하는 경비를 도입했다. 또 치과학교 육인증평가를 위해 많은 교수님들이 노력을 하셨고 인증을 받았다. 또 다음 인증을 위해 올해 다시 착수한다.

학생들을 다시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1988년 발령을 처음 받고 시간이 갈수록 학생들과의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 되었는데 학생들을 다시 가까이서 지켜보니 많은 이해가 되고, 자랑스러운 학생 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생각하게 된다. 또 국사에 실기시험이 생겨서 실기시험 준비 교 역할평가를 시행해 어떤 지도나 과정을 해야 할까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다.

Q: 앞으로의 1년, 넓은 입자 중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치과계를 리드할 수 있는 경북대학교 치과대학의 특색을 갖추기 위해 교수 영역에서는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들에게는 해외교류 등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환경개선을 통해 학생들을 도와주고 싶다.

〈치과의사로서의 삶〉

Q: 보온과 전공을 선택한 계기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 학생시절 내가 몸담은 분야를 발전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일찍 가지게 되었고 연구하는 일을 계속 하고 싶어 교수가 됐다. 통종 중 극심한 치통을 조절하는 것에 관해 관심이 있어서 통증을 치료하고 해결하는 보온과를 택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한과에 1명의 전공의를 뽑았는데 다형 학 좋은 기회가 돌아왔다.



하지만 통증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보다 더 큰 장점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이를 보온해서 살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발전시키지 않고 치료해서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이 보온과의 큰 매력이다.

Q: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신다면?

A: 재발, 치주, 보온과가 주축이 되어 '자연치아 이기기' 제형은 통증을 하고 있다. 자연치아를 살리고 통증을 조절하고 심미적인 문제로 관심이 있는 학생이 되면 보온과와 상담이 매력적이지만 없을까? 보온과를 마치고 치과 의사 하는 사람이 되어 선택해서 너무 자랑스럽다.

Q: 치과대학을 먼저 거쳐오신 선택으로서 우리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학생들이 어디까지 공부할지 계속적으로 하면 좋겠다. 직업생명은 훨씬 깊어졌기 때문에 학교를 조금 늦게 들어왔다고 해서 결코 늦게 없다. 충분히 시간을 투자 할 가치가 있다. 배워서 학신을 가지고 진로에 임하면 좋겠다.

Q: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A: 진로는 다양하다.

일단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모두 기회를 가질 수 없지만 추진하고 싶다. 대학원공부를 같이 있게 해서 기초와 임상 두 가지 전공 지로 선구자의 길을 갈 수도 있고, 구강보건 행정쪽으로 관심을 가지는 학생은 보건복지부 공무원도 할 수 있다.

임플란트나 연도기구를 개발하는 치과산업에도 종사할 수 있다. 외국에서 그 나라의 현화를 하는 방법도 있고 큰 뜻을 품고 우리의 의료기술이 필요한 나라에 의료봉사를 할 수도 있다.

진로는 다양하지만 결국 공부를 해야 한다. 평생 바뀌는 의학을 따라가야 하므로 평생공부를 해야 한다.

Q: 끝으로 경북대학교 치과대학이 원장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A: 경북대학교 치과대학은 나에게 많 그대보 '살아가는 바탕'이다. (가정, 직장, 사회생활) - 수년간 공부의 기회, 전공의 기회를 통해 배운 것을 바탕으로 그 분야를 발전시키는 데 노력하고 학생들이 그런 교육을 살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배탕' 이 될 수 있다는 것. 충신의 힘을 쏟을 수 있는 터전이 바로 경북대학교 치과대학이다.

치과의사는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 우리 대학 구성원 모두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행복발전소'가 되었으면 한다.

인터뷰에 흔쾌히 임해주신 김성교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이점이



출처: 김은재 / 편집: 박재영

할때고 이세돌의 대국이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이세돌의 패배 소식으로 인간들은 열거한 노력에만 인공지능이 한걸음 다가왔음을 느끼고 인공지능이 인간을 위협하는 미래를 상상하며 불안해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저제한 사회 곳곳에서 인공지능으로 인한 피해사태 변화에 관심을 갖고 있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영역을 대신 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 중에는 대표적으로 헬스케어이다. 미래에는 의사 대신 인공지능이 인간의 질병을 진단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의사라는 직업이 없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미래 의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현재 어느 수준까지 되었을까. 또 논란의 여지는 없을까. 현재 세계적인 기업들이 뛰어들어 헬스케어 분야 인공지능 기술이 어느 수준까지 와있는지 알아본다. 인공지능 기술을 헬스케어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은 전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인공지능의 의료분야 활용은 아직 초기단계이지만, 이미 의료 현장에서 인공지능은 활용되고 있다. 헬스케어 분야 중에서는 IBM이 만든 왓슨과 구글의 제임스 등이 대표적이다.

IBM이 만든 왓슨은 환자의 알 진단 등에 활용된다. 알 진단은 다른 사람의 질병의 진단, 유전 정보 분석, 임상시험을 도와주는 등의 형태로 활용되고 있고, 알 진단의 경우 인공지능이 어떠한 분석 기술을 활용해 병력처리의 역할을 하는 디지털 병력학 기술도 발전하고 있어 알 조직 검사를 수행하기도 한다.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한 왓슨은 약100여종의 유용한 의학 정보를 학습해 알 진단의 정확성을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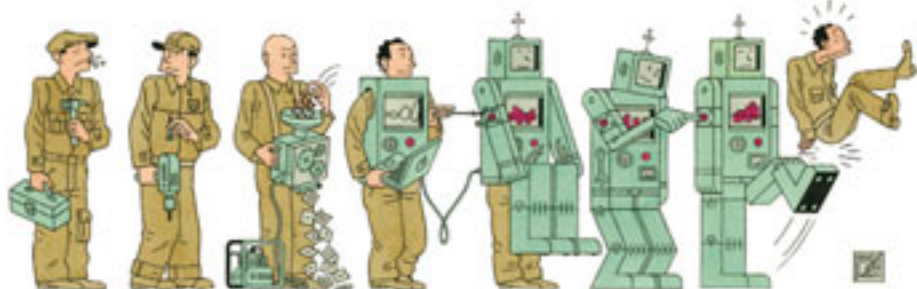
실제로 2014년 미국 중앙학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의료진과 인공지능이 협업한 연구결과 전문 의사와의 진단 일치율이 대장암 98%, 직장암 96%, 자궁경부암 100% 등의 높은 일치율을 보였다. IBM과 유수의 대학 및 전문병원들이 엄청난 양의 의학자료와 전문의사들의 기존 처방기록을 내재화해 알 적용률 99.9%의 재조합을 거쳐 왓슨이 제시하도록 만든 것이다. IBM은 헬스케어 분야에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최근 헬스 사업부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왓슨 헬스 그룹을 독립시킨 후 환자 데이터 관리, 데이터 분석, 영상의료(100%의 분석기술을 보유한 회사 등을 인수하는 등) 기술의 확대를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알다시피 만들며 인공지능이 세계적 화두가 되며 많은 구글도 헬스케어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구글은 이번 알다시피 이세돌의 첫 대국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머신러닝이 적용될 분야로 헬스케어의 로보틱스를 꼽을 정도로 헬스케어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확대하는 것에 적극적이다. 구글의 자회사인 알파벳은 이 계열인 베일리는 개발중인 수술로봇에 기계학습 기술을 더해 이전 수술의 영상 라이브러리를 분석해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에게 결재 부위를 보여주는 등의 기술을 대할 계획이다. 또 눈 사인만 보고 당도를 예측하는 프로그램, 암세포를 탐지하는 나노입자가 눈 안막, 혈액 속의 암세포를 파괴할 수 있는 손목 부착형 기기 등 구글의 헬스케어 분야 기술은 인간의 질병을 정확하고 의사의 영역을 존중받던 기술들이다. 구글의 자회사인 알파벳의 여러 수퍼트 화장은 지난해 10월 한국을 방문한 '일오로 머신러닝 기술이 더 발달 할 것이다. 현재의 방식선 활용 등의

특성을 사람이 하고 있는데 컴퓨터가 이따지 특성을 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 명의 의사가 5만명 분을 하듯한다면 전이나 다른 부분은 컴퓨터가 대입은 알을 학습 것'이라고 생각한다. 진단 부분에서는 의사보다도 더 정확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구글이 현재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인공지능 기술이 헬스케어 분야에서 의사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여전히 인공지능은 기술의 헬스케어 분야 적용에 걸림자 확대되면서 의료계와 사회 곳곳에서는 대대적 의사와는 직업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질병을 정확하고 저하는 인간에게 인공지능의 의료 영역 확대는 희소시점지 모르나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인공지능이 의료행위를 하는대부분 윤리적 문제와 의사라는 직업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 의료, 인공지능이 의료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느냐를 놓고 윤리적 문제가 거론된다. 또 임상 시험을 하듯이 인공지능은 의사와 인간 의사의 이중 검사 필요도 논쟁거리다.

전문가들은 걱정을 하기보다 변화에 발 맞춰 새로운 관점을 구축해라 한다고 주장한다. 인공지능은 의사의 의사 역할 대체는 인간과의 대결구도가 아니라 협력구도로 나아가는 것을 고민해라 한다는 것. 또 인간 의사와 인공지능은 의사가 각자 각자의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앞으로 미래 로봇과 인공지능이 의사의 영역을 판단 대체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왓슨과 같은 컴퓨터 기술이 발전할수록, 의료로 전자를 이해하고 공급해주는 의사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정리해 보자, 코리안 빅리거

글 박은철 / 편집 박재경

루신수(텍사스), 류현진(LA다저스), 강정호(피츠버그), 박병호(시애틀), 오승환(세인트루이스), 이대호(시애틀), 최지민(LA애인절스), 김민수(플리마켓), 한국인 메이저리거들이다. 박병호, 류현진 등이 활약하던 2005년도와 같은 경쟁이 끝의 리그와 불리는 메이저리그를 진출했다. 하지만 그 시절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 당시 메이저리그 14개팀은 대부분 유망주 시절부터 미국으로 건너가 메이저리그를 거쳐 메이저리그로 데뷔했던 것이 보통이었다. 선수들도 자기가 뛰는 하지만 이들이 메이저리거로서 입지를 다지기까지 수년이 걸렸다. 하지만 KBO 출신으로 포스트시즌 통해 메이저리그로 진출한 류현진, 강정호는 첫해부터 주전자리를 꿰차며 입지를 다졌고 올해 진출한 대부분이 선수들도 유망한 주전후보이거나 즉 시전확망이다. 한국, 일본 무대에서 예이스트 활약하며 다 큰 무대인 메이저리거로서도 그들의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메이저리거가 한국 야구를 바라보는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이다. 또한 14개팀은 대부분 투수였던 것에 비하면 전격은 대부분이 타자들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루신수, 류현진, 강정호는 이미 빅리그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 그중 루신수는 메이저리그에서도 베테랑 선수로 평가받고 있고 주전 유망후보로 확실한 자리를 지키고 있다. 류현진, 강정호는 지난 시즌 부상으로 수월대까지 올랐지만 회복 후 팀에 합류하면 주전 투수, 3루수임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올해 새롭게 합류한 박병호, 오승환, 이대호, 김민수, 최지민도 초반 주전경쟁할 일 아니었다면 꾸준한 출장기회를 가질 것이 확실하다. 그중 가장 주목 받고 있는 선수는 박병호이다. 미국 현지 언론들이 시즌이 개막하기 전부터 박병호를 세인트루이스의 주전 지명타자로 분류하고 약 20~30개의 출장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병호는 이러한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이 시즌 개막한 지를 3개의 양타자 출장을 거쳐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오승환은 한국, 일본에서 최고의 피투러 투수로 활약했지만 메이저리거에서는 중간계투를 맡을 것이다. 세인트루이스에는 요새 최강팀이라는 메이저리거 최고의 피투러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 메이저리거 중 가장 늦게 입단을 확정 지은 이대호는 메이저리그 도전자였으나도 큰 기회가 있었으며 타격 능력에 비해 수비와 주루가 약하다는 선입견을 극복 할 수 있을지가 관건 요인도 될 것이다. 이전까지만 해도 아시아 타자들에게는 포지션을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강정호를 기점으로 그러한 시대가 앞은 변화가 생겼다. 박병호, 이대호 등도 그러한 이유에서 KBO가 포워드 주축을 받고 있다.

이런 시즌 많은 한국인 선수들이 메이저리그로 진출하면서 일본인 메이저리거들이 대당도 기대한다. 다케우치 유(텍사스), 다나카 미시후미(뉴욕 양키스), 미와무라 히사시(시애틀), 아오키 노리히사(샌프란시스코), 이대호 전격(LA다저스) 등이 일본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선수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일본 야구 리그는 선수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일본 야구 리그는 선수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일본 야구 리그는 선수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이전까지는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것만으로도 큰 성공이라 여겼지만, 이제는 그곳에서도 선발자리를 꿰차며 우리들에게 뿐만 아니라 낯선 미국인의 눈앞에 이를 때에도 위대한 선수로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선수가 되었으면 한다. 이들의 활약이 야미와 후배들이 빅리그의 꿈을 이루고 아시아 야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다음은 한국인 메이저리거 맞대결 예상 일정이다.

5월

7-9일 | 피츠버그(강정호) vs 세인트루이스(오승환) : 푸시스타디움
10-12일 | 세인트루이스(박병호) vs 플리마켓(김민수) : 라즈볼드
14-16일 | LA 다저스(류현진) vs 세인트루이스(오승환) : 다저스타디움
18-20일 | 시애틀(이대호) vs 플리마켓(김민수) : 오키올파크
28-30일 | 텍사스(루신수) vs 피츠버그(강정호) : 글루브브라이프파크
28-30일 | 시애틀(이대호) vs 피츠버그(박병호) : 세이프로야드

6월

4-6일 | 시애틀(이대호) vs 루신수(텍사스) : 글루브브라이프파크
11-13일 | 시애틀(이대호) vs 루신수(텍사스) : 세이프로야드
11-13일 | 피츠버그(강정호) vs 세인트루이스(오승환) : PNC파크
18-20일 | 텍사스(루신수) vs 세인트루이스(오승환) : 푸시스타디움
25-28일 | LA 다저스(류현진) vs 피츠버그(강정호) : PNC파크
29-30일 | 시애틀(이대호) vs 피츠버그(강정호) : 세이프로야드

7월

1-4일 | 플리마켓(김민수) vs 시애틀(이대호) : 세이프로야드
2-4일 | 텍사스(루신수) vs 피츠버그(박병호) : 라즈볼드
5-7일 | LA 다저스(류현진) vs 플리마켓(김민수) : 다저스타디움
5-8일 | 피츠버그(강정호) vs 세인트루이스(오승환) : 푸시스타디움
8-11일 | 텍사스(루신수) vs 피츠버그(박병호) : 글루브브라이프파크
23-25일 | LA 다저스(류현진) vs 세인트루이스(오승환) : 푸시스타디움
27-28일 | 피츠버그(강정호) vs 시애틀(이대호) : PNC파크

8월

3-5일 | 텍사스(루신수) vs 플리마켓(김민수) : 오키올파크
13-15일 | LA 다저스(류현진) vs 피츠버그(강정호) : 다저스타디움
30-9월 1일 | 루신수(텍사스) vs 시애틀(이대호) : 글루브브라이프파크

9월

6-8일 | 피츠버그(강정호) vs 세인트루이스(오승환) : PNC파크
6-7일 | 루신수(텍사스) vs 시애틀(이대호) : 세이프로야드
24-26일 | 시애틀(이대호) vs 플리마켓(김민수) : 오키올파크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성 혐오

글 손승선, 사진권 / 편집 손유리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성에 대한 혐오를 표현하는 단어들이다. "남혐"은 온라인 사이트와 대중매체를 통해 여성혐오(여성)가 급속히 퍼졌고, 이에 대한 반발로 남성혐오(남혐)도 고개를 들고 있다. 성차별의 사회적 구조는 유사 이래 지속되어온 것이지만 이처럼 대대적이면서도 폭대적으로 남녀가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공격하고 혐오하는 현상은 유례가 없다.

[여성혐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남성혐오보다는 여성혐오가 더 만연해 있다. 여성혐오는 여러 요인이 복합하게 얽혀 나타난 현상이며, 양형대로 다른 현안도 있다.

먼저 우리나라 기존가치관을 뿌리인 유교문화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거 조선은 유교적 가치의 확립이라는 명분으로 가부장적 남성 우월주의 문화를 더욱 강조하였다. 여성의 성 역할을 수동적이고 보조적인 것으로 한정해버렸고 그것이 문화로 정착되어 최근까지 견제해왔다. 그런 문화를 당연시하는 시대를 살았던 고연형중에서 고정된 성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문제는 성 평등을 고취받으며 자라는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성차별적 인식과 비하가 유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청소년들 사이에서 여성 혐오 성향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사회적 환경이 젊은 청소년들에게 매우 강력한 영향을 발휘하는 대중 매체에서 남녀 갈등을 조장하고 극단적인 여성혐오를 불러일으킬 만한 장면들을 지속해서 보여주었다. 특히나 "남혐"을 대표하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여성에 대한 관형적 사투이 단편적인 사물을 여성전체의 것으로 호도하여 인터넷의 위급력을 발원한 청소년들에게 여성혐오 성향을 주입했다.

20대, 30대에서의 여성혐오현상은 여러과는 다른 경제상황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수경 경기도 복지상리학과 교수는 "여성의 권리가 신장하고 경제 불황, 취업난 등으로 젊은 세대의 삶이 적막해지면서 반대 성에 의해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어졌다"고 분석했다. 매년 같은 여성이기에 가지는 취업시장에서의 우월함을 이하는 누릴 수가 없게 되었고, 여성과 취업 전선에서 경쟁해야 하게 되었다. 그에 따른 분노와 좌절을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향해 쏟아내고 있다.

기존의 가치관과 현재의 가치관이 충돌하면서 벌어지는 과도기적 문제에서도 20대와 30대에서 여성혐오가 만연하게 된 현안을 찾을

수 있다. 데이브 바렛을 남자가 항상 부양한다거나, 결혼 시에 남자가 집을 장만하고 여자는 후수를 장만하는 등의 관습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여성의 경제력 능력이 향상되고 여성의 권리가 신장함에 따라 남성이 경제적 부양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것은 무리한 관습으로 변모하여 여성혐오를 불러일으키는 한 원인이 되었다.

[남성혐오]

남성혐오의 원인 중 하나는 전통적 가부장제다. 여성이 사회, 경제적으론 남성과 동등한 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도, 기사 분담이나 육아 문제는 여전히 여성에게만 일방적으로 강요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 남성혐오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여성혐오에 대한 반발의 성격이 강하다. 여성혐오에 반발하여 남성혐오는 '미로스 걸리언', '베일리아' 등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게시물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다. 이들은 여성혐오의 대표적인 사이트인 '일베' 못지않은 극단적인 남성혐오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남성의 여성 혐오와 동등하게 취급해선 안 된다'는 게 일부 남성들의 주장이다. 한 20대 여성은 "남성 혐오가 아닌 여성 혐오에 대한 혐오(여성혐)라며 '남자가 가슴이 작은 여자'를 농담하는 것에 '여자도 '생기가 작은 남성'이 있고 '맛서는 것일 뿐'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극단적인 혐오에 맞서기 위해 이런 가치로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고통을 더욱 조장할 뿐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위와 같이 사회에 어떻게 남녀에 대한 혐오가 만연하게 된 현상이고 다양한 이유가 있다. 가장 근본적인 현안은 우리 사회가 아직 완벽한 성 평등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개개인의 사고방식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전반에, 심지어 대중매체에서도 성 차별적 인식과 구시대적 가부장적 사고방식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성 평등에 대한 인식 확립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우리나라는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시작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완전한 평등이 실현되면 남녀는 같은 길을 가는 동반자로서, 서로 이해하고 갈등은 훨씬 줄어든 것이다.

머니투데이

'한남총' '맘총'...벌레가 된 한국 남녀

기사입력 2015.10.04 오전 7:30

최종수정 2015.10.04 오전 7:30

033 2

가- 가+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취재여담]韓, 남녀 대립 극한으로 치달는 이유는...극심한 취업난.



'관심'이 필요한 아이들

글 박계원 비국립 / 편집 강민호



지난 3월, 경기도 평택에서서 '왕영이 사건'으로 불리는 아동학대사건인 '왕영 실종아동 실체 사건'이 발생했다. '왕영이 사건'은 산성원군의 침부와 계모가 왕영군을 학대할 후 양육사의 한 아산에 입양당한 사건이다. 왕영군의 사신을 부검할 결과, 왕영군의 위축은 당 비어있을 정도로 골주할 상태였으며, 다수의 멍 자국이 남아있었고, 채굴도 부러질 흔적이 있었다. 이사건은 온 국민을 충동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공분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아동 학대란 정확히 무엇인가?

아동 학대는 일반적으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괴와 방임을 말한다. 아동 학대에는 크게 4가지가 있다. 부모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손, 발, 주먹 등을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적인 손상과 고통을 주는 '신체적 학대', 언어적, 정서적 위협, 감금 등으로 아동의 인성발달에 손상을 입히는 '정서적 학대', 성인이나 나이가 많은 아동이 성적인 자극이나 총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성적행위를 하는 '성적 학대', 그리고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아동 영육 및 보호의 소홀로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인 '방임'이다.



아동 학대의 문제점은 학대 때문에 어린이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도 있지만,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아이에게 심각한 후유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성적 학대로 인해 피해 아동에게 나타나는 정신 장애 증상은 우울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 장애 등이며, 후유증이 성인까지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가족 구성원에게서 받은 성적 학대는 보통의 성적 학대보다 더 심각하고 장기적인 정신적 외상을 남긴다.

또한 미국 아동 학대 통계에 의하면, 아동 학대를 경험한 사람이 청소년기에 범죄를 저질러 체포된 비율이 비범죄자보다 59% 더 높으며, 성인기에 범죄를 저질러 체포된 비율은 28% 더 높다고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한 대학생이 부모를 모두 토막 삼았다고, 그 시체를 유기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대학생은 어릴 때 군인이었던 아버지에겐 오한 기간 동안 당했던 아동 학대 때문에 부모 모두를 살해하였던 것이었다.

최근에 일어난 아동학대사건으로는 '왕영이 사건' 외에도 '입학 초등학생 감금 사건'이었다. '입학 초등학생 감금 사건'은 아동의 침부, 사실관계의 계모, 계모의 친구 3명이 2013년 가을 경부터 2015년 12월 12일까지 입학 연수구내의 주거지에서, 11세 여아인 아동을 세탁실, 욕실 등에서 손, 발, 옷 끝이, 쇠붙 등으로 수 일간 상습 감금, 폭행한 사건이다. 아동은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로 (당시 몸무게 16kg) 생명을 위해 주먹 2층 정원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한 상태로, 상원에서 과자를 훔치다 발견되었다. 올해 3월 12일에 발생한 '왕영이 사건'은 계모가 왕영군에게 한겨울에도 얇은 옷을 입히고 아침부터 밥으로 못아내고, 잠에 약을 뿌리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치가을 욕실에 가두어 왕영군을 사망하게 만든 사건이다. 왕영군의 계모와 침부는 숨겨지는 왕영군을 11일간 시신으로 베타대에 방치했다고 인정해 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비극적인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관심'이다. 우선 아동학대의 광풍이 보인다면 바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아이돌봄터 등 아동 사생활과 관련된 종사자들은 아동 학대의 기미가 보인다면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아동 학대의 징후들이 몇 가지 있다. 울간으로 인한 신체적 상처가 있을 때, 그 상처 부위가 늘다가 갈라질 수 있는 무릎, 팔꿈치 등에 있는 게 아니라, 상가부위, 허벅지 안쪽, 목 안쪽에 상처가 있다면 아동 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다.

또한 아이가 고를을 같은 극단적인 행동양상을 보이거나 밥을 잘 먹는데도 살이 빠지는 경우, 정서적 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다. 학대가 의심되거나 확실하다면 112에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에 '직접 신고' 앱을 깔아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신고 접수가 된다고 해서 모두 처벌 받는 것은 아니다. 현행로서도 아동 학대 여부를 판단 후 상담과 교육을 통해 해결되는 경우도 있다.

아이들을 돌봐야 할 일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지만, 혹시라도 주변에 학대하는 아이들이 없지 않는 관심과 애정, 아동학대의 의심이 보인다면 제때 신고를 통하여 큰 아픔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계모의 왕영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Say NO to Pain!

아픔을 멈춰라!

—의무신교자로서 치과의사—

글 김대근 박은경 / 편집 장인호

2016년 초에 장기결핵아동 권수르사가 있었다. 대상자 287명 중 아동학대로 밝혀진 것이 6건이다. (16.1.27. 기준) 부천 고등생 도박사건 사건(보도일 2016.1.15), 추격로 부천 여중생 백금사건 사건(보도일 2016.2.3), 큰 말 살해 일대기 사건(보도일 2016.2.15)이 장기결핵 중학생까지 확대된 권수르사로 밝혀졌다. 시키는 행을 즐긴 소녀이다. 상경 루인이 도둑에 비해 작고 어둡어 보이는 아이를 보고 신고해 권수르사가 이뤄졌고, 세상을 경악시킨 사건들이 줄줄이 알려지게 된 것이다.

국내에서 학대받은 아동들에 대한 치료, 발견 및 예방을 위한 노력은 1979년 UN에서 세계 아동의 해 선언에 힘입어,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사육에 아동학대고발센터를 개설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시민들의 무관심과 신고경신 대응으로 1년 만에 문을 닫았다. 또한 1983년에 어린이성당전학, 1985년에 아동권익보호신고소가 개설되었으나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약 10년이 지나 1989년 여러 분야의 권운거들이 모여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를 창설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신고를 포함한 아동학대 방지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학대받고 있는 아동의 발견, 개입, 치료, 예방을 위한 로지가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국내 아동학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의 발생률이나 빈도에 대한 정확한 현황모착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피해아동 발견률은 1000명당 평균 1.10명 이다. 미국의 1000명당 평균 9.1명과 호주 17.6명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하지만 이는 아동학대 발생수가 적다는 의미가 아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발견하지 못한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아동학대 피해자 대부분은 언더리포트 부모이며, 발생경우는 아동의 가명이다. 피해자는 외부의 누군가가 알아주기 전까지 가릴 곳이 없다. 주변의 신고가 어린 아이의 고통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길인 것이다.

아동학대 의무신고자란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들을 의미한다. 이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와 절차 2항에 명시되어있다. 비신고의무자와 차이점은 의무자이기 때문에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그만큼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근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치과의사는 24가지의 직업군 중 의료인 범주에 들어간다. 치과의사는 의사에 비해 구강의 상처와 병에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 때문에 관련 부분에서 아동학대의 징후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아동학대는 신체학대, 성학대, 방임, 성학대가 있다. 여기에 따라 치과의사가 알아차릴 수 있는 징후도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그렇다면 치과의사가 발견 할 수 있는 징후는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는 물리적 학대의 흔적이다. 머리, 얼굴, 목 부위는 아동학대에서 나타나는 상처 중 발견이상을 차지한다. 학대의 흔적은 단순 목욕 뿐 아니라 감제로 음식을 먹이는 과정에서 생기는 구강의 상처, 손, 붉은 것, 부식성 물장 등을 감제로 입안에 넣는 경우 생기는 상처도 포함된다. 이런 행위는 구강의 타박상, 화상 또는 혀의 열상, 얼굴뼈와 턱, 치아

를 금강을 치기있다. 확대받은 흔적이 나타나는 부위는 입술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뒤는 구강점막, 혀, 잇몸, 혀 손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색된 치아는 예전 학대의 흔적을 나타낸다. 치과의사는 이런 증상에서 상태특성이 무법적인지의 여부를 아동발달과 능력이 비교하고 판단하여, 학대를 구분할 수 있다. 가벼운 상처는 인공 치관성도가 다른 여러 부상부위가 발견되며, 부모의 진술과 상태흔적에서 모순이 발견되면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성격 학대의 흔적이다. 구강은 아동 성학대에 빈번한 기관이다. 사춘기 이전 아동들의 구강 및 구강주위 성병은 성격학대를 강하게 의심할 수 있다. 하지만 구강성병을 위한 조사와 시험은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동의가 필요하다. 구강성병의 경로가 직접적인 성행위에 의한 것인지 간접적, 비성적 접촉에 의한 것인지 세심한 판단이 필요하다. 치과의사는 설명할 수 없는 입천장의 상처, 인두 알집 등을 종합하여 성격학대가 의심될 때, 아동보호센터나 별 김행기관에 연락하여 아동보호와 사건수사를 시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세 번째는 방임된 흔적이다. 관리 없이 방치될 경우 구강건강은 악화된다. 의도적 방전은 피해아동에게 구강감염과 고통이 온다. 방치는 부모의 무지, 경제적 어려움 등 다른 이유로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교육, 금전적 지원 등의 1차적 조치가 있었을 경우, 남아있는 흔적들은 아동학대를 의심할 수 있게 한다.

여기에 대하여 치과의사는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언어장애, 행동장애 등 성서학대의 징후들과 종합하여 아동학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2016년 2월 26일 기준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총 19,209건으로 이 중 4,885건이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이고, 의료종사자의 신고는 137건이다.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없지만 세부적으로 치과의사의 영역까지 내려가면 더 좋을 것이다. 근무 여건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치과의사가 학대아동을 만나기는 어렵다. 하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충격을 가져온 권수르사 결과, 신고의무자가 확대되고 목표가 신고에서 예방과 조기발견으로 바뀐다. 적은 관심이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구할 수 있다. 자신의 주변으로 들어온 아이가 구조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상황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사라지지 않는 파시즘

글 김민주, 김현진, 이지우 / 편집 권이은

파시즘(fascism)은 '움음'이라는 의미의 이탈리아어 파소(fascio)에서 유래한 말이었으나, 제1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무솔리니의 극단적인 전체주의적 이념과 결합하여 '단결'의 뜻으로 쓰이게 되었으며, 이 시기에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등장한 정치이데올로기 운동을 지칭한다.



이탈리아의 베니토 무솔리니에 의해 시작된 파시즘은 민주주의와는 전혀 반대되는 이데올로기로 그 간판을 반계유주의, 민족주의, 국가주의 등에 놓는다. 파시즘은 독일의 나치즘, 일본의 권제주의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변형되었다.

파시즘 주류는 대외적으로는 철저한 국수주의·군국주의를 지향하고, 내부적으로는 계유주의를 부각하고 폭력적인 방법에 의한 독재와 절대적인 복종을 강요한다. 또한 근본적인 인간 평등을 부인하고 하나의 이상으로서 유행등을 확산한다. 즉, 파시즘은 경제계도보다는 오히려 생활 양식으로서 모든 인간관계에서의 권제주의이다. 요점에서 무당까지 일련성 인간생활의 모든 국면을 통제하는 것이다.

이는 단지 한 나라 이탈리아의 과거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 역시 파시즘 유사 체계에 노출되었던 시기가 있었고 그로 인해 많은 희생자가 생겨 왔다. 시간이 흘러 민주주의 체계에 성공적으로 정착함에 따라 파시즘 역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듯 보였지만, 일변하는 사회와 함께 그 형태를 바꿔가며 끊임 없이 문화, 군대 문화, 폭력의 직간 문화 등의 모습으로 여전히 발견된다.

불과 몇 년 전 여성성노동자들이 출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감찰해 고발한 사건이 있었다. 여성성규칙에 대한 남양유업 측의 부당한 대응이 그 주요

이였다. 정규직 여직원이 결혼하는 경우 결혼 직후 계약직으로 전환되었고 해당 직원의 임금이 삭감되었으며 심지어는 회사로부터 회사를 강요 받았다. 여성근로자들의 결혼과 사생활이 회사의 업무를 저해한다는 이유였다. 실제로 남양유업의 기존 여성 직원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기업의 목표는 이윤창출에 있다. 하지만 개인을 인격체가 아닌 도구로 여기고, 회사의 이윤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감압적인 수단을 쓰는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된다. 그저 기업의 문화라고 치부하거나 너무도 폭력적인 모습이다. 단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태는 파시즘의 특성과 문제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개인의 희생을 짓밟고 선 사회와 기업은 그만큼 더 큰 이윤을 얻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진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유연 근무지원제도가 잘 활용된 기업일수록 총업원 1인당 매출액은 0.38%, 순이익은 0.23% 더 높았다. 또한 실행하는 유연 근무제도가 수기 늘어날수록 기업 순 이익률은 5.33%, 총업원 1인당 매출액은 0.35%, 순이익은 0.15%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처: 2015 한국경제연구원 제13차, 권태희 한국고용정보원 박사) 즉, 구성원의 권리가 선행된 집단이 더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개인의 권리와 공익 중 무엇이 선행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꾸준히 많은 논란과 견해가 있어 왔고 현재진행형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공익에 편중함으로써 여기저기는 문제점들이 과거에는 간헐적 있었지만 요즘에 와서 수면 위로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어떤 것이 사회의 운배를 이익인지 성찰해 봐야 할 때이다.





글 김진재 / 편집 스테디

슈만과 브람스는 대표적인 낭만주의 작곡가이다.

스물 세 살 차이가 나는 그 두 사람은 클라라라는 한 여인을 사
이해 두고 이어져왔다. 슈만의 곡은 '여자가 없이는 해석이 불가
능하다. 건반작부터 후각까지, 그는 그의 거의 모든 작품을 연
애 편지로 활용했다. 가상의 여자, 야망을 위해 이용하려 했던 여
자, 그리고 정말로 사랑해서 결혼한 여자(클라라)를 위해서 말
이다. 그래서 그의 곡은 어쩌면, 모든 곡들의 의미를 연애 감경으
로만 치환해서 생각한다면 일견 해석하기 쉽다고 여가될 수도 있
다.

그러나 슈만은 클라라를 사랑하는 감정 외에도 본의 아니게 본
인의 정신분열증 또한 작품에 투영된 것이다. 내성부가 대단히
복잡하고 억압이 가혹해지는 산만할 때도 있다. 행상하다가 갑자기
날땀이 날땀다가 갑자기 아무렇게 않은 듯 속 거러있는다. 슈
만은 끊임없이 곡에서 번덕을 부리고 복잡한 마음을 숨기지 않
았다. 클라라는 그런 슈만의 모습조차 사랑했기 때문에 이혼 살
았던 번덕쟁이를 용었다.

작곡가로서 슈만의 명성은 날로 높아져만 갔다. 그런 와중에 슈
만에게, 그리고 당대 최고의 여성 피아니스트였던 클라라에게
연경받고 싶어하던 한 젊은이가 있었다. 그는 브람스라고 하는 신
출내기 작곡가였는데, 그는 본디 그렇게 용기가 있지는 않았으나
무슨 생각이었던지 다짜고짜 슈만의 집으로 찾아갔던 것이다. 갖
스물이나 넣었을까, 그 어떤 친구의 곡을 본 슈만과 클라라는 대
단히 감탄했으며, 클라라는 그 젊은이가 작곡한 피아노 곡을 슈
만의 곡 만큼이나 자주 연주했다. 그는 그려낸 안된다는 걸 알면
서도 클라라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사회 통념을 거스
르만큼 그렇게 용감하지는 않았다. 그는 슈만이 클라라 곁을 떠
난 뒤에도 클라라와, 클라라의 앞길을 극언히 보살폈다.

브람스의 곡에도 마찬가지로 클라라를 향한 마음이 다분히 들
여져있었다. 그러나 40여년간을 불혼도 아니고 결혼도 아니고

연애도 아닌 그런 애매한 사이로 지내을 수밖에 없었다. 클라라
는 벽장된 생계 때문에, 그리고 사회의 어둠 때문에 브람스의 마
음을 알면서도 애써 무시했다. 그렇기에 그 당시 브람스가 살 수
있는 것이라곤 오로지 작품으로 그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뿐이었
을 것이다. 따라서 브람스의 많은 작품에서도 클라라라는 여인을
해놓고는 해석하기 힘든 것이다.

그러나 브람스의 곡도 단순히 클라라에 대한 마음으로만 해석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의 심리상태는 늘 우울했고 가라앉
아있었고, 원기를 반수하는 듯했다고 한다. 그런 그를 간과해서
는 안될 것이다. 궁교롭게도 심리상태가 안정적이지 못했던 두
작곡가가 한 여자를 사이에 두고 이어져 있다. 슈만과 브람스의
경우 감상(혹은 연주)의 난이도에 비해서는 꽤나 유명해서인지
여기저기서 자주 들리는 곡들이다. 감상할 때 작곡가의 불안한
심리상태와, 언제나 그들을 따뜻하게 잘 물어주었던 클라라의 모
습을 상상해본다면 조금은 그들의 곡에 다가가기 쉬울 것이다.



UNO의 치과일기



작가의 일상

본과 오물도 프랑슘을 하였다.
열심히 하고 저울했는데...



레지 선생님께서 그렇게 프랑슘한
치아가 다시 다 복는다고 말씀하셨다.



프랑슘해서 흔들고,
거기서 또 복으면 또 흔들고...
이게 진정한 프랑슘재 아닌가?



UNO의 치과일기

이은숙 hosuni@naver.com
(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나 자신을 다 드러내니,
상처만 받게 되더라고



그래서 라미네이트 가면을 먼저
항상 이렇게 보여주지만, 속은 상처투성이지.
넌 어떤 이름을 갖대 오를거야.



어니



나도 풀크라운했어



또, 겹모습만 보고 판단해버렸구나 내가